



# 오픈액세스 활성화와 대학도서관의 역할

글 | 김 종 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팀장  
kjichul@dongguk.edu

## 반값 등록금과 도서구입비 예산

언제부터인가 대학교의 등록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일일이 간여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립대학교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값 등록금이라는 사회적인 요구는 사립대학교의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재정 압박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여러 평가 지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이다. 대학의 정보공시나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금 인상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도서구입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없다 할지라도 도서 가격의 인상이나 전자저널 및 WEB DB의 가격 인상을 상쇄할 만한 예산 증가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예산은 증가하지 않는데, 도서구입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저널이나 WEB DB의 구입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이것이 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에 미치는 압박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실정이다.

### 학술논문의 비상업성과 전자저널 구입

대학도서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공하는 학술자료 중 전자저널에서 제공하는 학술 논문은 대중음악이나 상업 영화 등과는 달리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학술논문의 저자는 상업적인 목적 보다는 자신의 연구 업적을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여, 이를 많이 인용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연구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대부분이 논문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논문을 쓴 그 자체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있어 논문의 상업적인 판매에는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다국적 출판사는 기출간된 저널들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저널 DB로 구축하고 이를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저널 DB인 《Science Direct》를 판매하는 출판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수백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논문의 저자들이 권위있는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실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용한 것으로 도서관으로서 연구자들의 수요가 많은 이러한 전자저널 DB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픈액세스 자료의 출현과 DB 구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복제가 용이해 지고,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적인 배포가 가능하게 되어 1997년

인터넷 저작권 조약이라 불리는 세계저작권기구조약(WCT) 이래로 저작권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학술 논문도 저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저자의 저작권을 넘겨받은 학회와 이 학회와 다시 계약을 맺은 DB판매회사 또는 출판사들의 이익 때문에 저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논문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로 비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OA자료는 디지털화, 온라인화한 자료로 대가 없이 대부분의 저작권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자료이다. 그래서 OA가 실현되면 인터넷을 통한 자료 이용과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OA자료의 이용은 저작권료나 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용 권한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OA는 상업출판사 중심의 학술논문의 유통을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OA자료의 구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관 레퍼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를 구축하는 방법과 OA저널(Open Access Journal)을 만드는 방법이다. 기관 레퍼지토리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자체 생산한 각종 학술 자료나 정보 등을 등록,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관 레퍼지토리는 OpenDOAR(The 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http://www.opendoar.org>)에

의하면 2013년 5월 23일 현재 102개국에 1,910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우리나라는 12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대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하대학교 등 3개교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발간하는 대표적인 OA저널은 미국 미시건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편집을 맡고 도서관에서 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 《Philosopher's Imprint》가 있다.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에서 미국 MIT 대학의 D-Space를 모델로 한 레퍼지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기관 레퍼지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하에 OAK(Open Access Korea)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 만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OA자료와 기관 레퍼지토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관 레퍼지토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dCollection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보급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KERIS는 이미 200개가 넘는 대학에 학위논문, 교내 간행물 등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호스팅 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레퍼지토리 운영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과 포털을 통해 통합 검

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OAK는 대학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학술 연구 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몇몇 대학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대학도서관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OA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학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는 저자 개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학회나 출판사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정책에 반발하여 정보 공유운동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연구 자료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학도서관은 OA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중 기관 레퍼지토리를 통한 정보공유 운동은 대학도서관이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학술 논문만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단행본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몇 년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텐베르크 프로젝트([www.gutenberg.org](http://www.gutenberg.org))'에 의해 제공되는 단행본 도서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DOAJ([www.doja.org](http://www.doja.org))에서 제공되는 OA 저널도 목록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dCollection 시스템에 의한 자료 구축은 안타깝게도 매학기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등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담당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연구업적 등록 시스템과 연동하여 교수의 저작물을 dCollection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다양한 교내 생산 학술 자료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내 연구소의 연구 논문집은 디지털화는 담당 인력을 축소하는 바람에 중단이 된 상태이다. 이러한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구글전자도서관 프로젝트(Google e-library Project)와 같이 단행본에 대한 DB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OA자료의 구축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학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행을 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dCollection이라는 호스팅 시스템이 이미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OA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은 KERIS에서 품질 관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한 저작권 처리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관의 홈페이지나 KERIS의 포털을 통해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관의 다양하고 고유한 OA자료의 구축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OA자료의 수집과 제공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대학도서관은 dCollection의 내실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하버드대학교는 앞으로 해당 대학의 교수들을 상대로 학술지에의 논문 발표를 금지하고 교내 OA저널에 발표할 것을 의무화한다

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외국 유명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 것을 주요 실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 규정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자가 발표하는 학술 논문은 그 대학의 도서관에서 구축한 기관 레퍼지토리에 의무적으로 self archiving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대학도서관의 기관 레퍼지토리는 단기간내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레퍼지토리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저널 및 WEB DB의 구입비 상승이 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에 미치는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의 모든 대학도서관 기관 레퍼지토리의 OA자료는 dCollection 시스템의 통합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레퍼지토리를 활성화하여 교내 연구자들이 보다 더 많은 OA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저널 및 WEB DB에 대한 구독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지금 대학도서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